

미용사의 직무만족도와 직업관

오애자 · 남철현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Beauty Shop Workers' Views of Job

Oh, Ai - Ja · Nam, Chul - Hyu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san University Kyungbuk,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beauty shop workers' views of job.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workers in Seoul, Daegu, Pohang, Junjoo, and Kimhae from June 1, 2000 to August 31, 200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8.7% of them was female; 94.2% 'specialized in hair'; 46.4% 'below twenty nine years old'; 47.1% 'married'; 59.7% 'highschool graduate'; 33.9% 'worked for below three years'; 28.5% 'monthly income of five hundred thousand to nine hundred ninety thousand won'; 62.3% 'working for above twelve hours a day'; 41.0% 'above five workers'; 40.6% 'working in city'.

2. 54.8%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y were in good health. 76.3% of them smoked and 54.8% drank. 62.8% of them did not exercise and 78.7% was under stress. 61.5% responded that they chose the job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professional vocation. 91.0% of them obtained the beauty skill from beauty schools.

3. Among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job satisfaction, 'stable job and life security' was highest(43.9%), while 'interest in the job and amount of pay' was lowest(3.2%). 'Personal ability and use of originality' was 19.4% and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fellow workers' was 18.1%. 'Job environment' was 7.1% and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higher workers' was 4.5%.

4. The level workers' view of job was 113.8 ± 17.3 points on the basis of 150 points. On the basis of 75 points, each item showed it points in order of self - development(22.3 ± 3.8), service for customers(20.1 ± 3.1), vocational mission(15.6 ± 3.1), harmony with the others(18.9 ± 3.5), working environment(18.6 ± 3.6), and working condition(14.3 ± 5.1).

5. Among the reasons why they considered leaving the job, 24.0% of them considered

it because they could not free time, while 15.4% considered it because undesirable living environment or long distance from home. 15.0% thought it because they coul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s much as they worked and 12.8% thought they overworked.

6. When they move into new working places, they consider such factors as good working environment(24.1%), good place to open their own beauty shops(16.7%), good beauty shop to learn beauty skill(15.6%), chance to have job training(9.5%), and close place from home (9.0%).

7. 40.6%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leave the job, while 32.3% of them did not want to leave the job. The intention of leaving the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riables of age, working period, monthly income, marital status, the number of workers, location of the shop, rank, and reason of selecting the job.

8.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which influenced job satisfaction, it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intention of leaving job, the number of workers, health condition, level of stress, and monthly income.

The beauty shop workers showed low satisfaction level with working environment,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mission, They considered leaving the job because of lack of free time, overwork, poor working environment, improper treatment, etc. Therefore, related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must device adequate measures in order to make them work with pride as creators of beaut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각자의 건강은 보건정책이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이 대신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책임과 노력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보다 나은 상태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남철현 등, 1996).

우리 신체건강에서 신체의 일부분인 피부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며, 개인 각자가 나름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 특히 여자에게는 피부건강과 미용이 모든 다른 신체부위의 건강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누구나 곱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어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얼굴에 있는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싶어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얼굴에 있는 결점을 감추고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피부미용과 관련된 화장품을 누구나 애용하고 있다(조영옥 1993,

김복희, 남철현 1995).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며 이러한 욕망은 시대와 더불어 기호는 변해도 미적 본능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생활의 여유 등으로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바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용분야는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송기옥, 1999).

산업사회의 발달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미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으며, 신체의 건강과 미적 추구는 우리 삶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패션사업과 함께 미용산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미의 가치기준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항상 변화되므로 그 시대의 욕구와 문화조류에 맞추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곽형심, 1998).

우리나라에서 미용업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제 1차 미용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1948년부터라 할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은 미용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1961년(이·미용사법공포)부터라고 할 수 있다.

피부미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YWCA에서 피부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198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국내에는 많은 미용학원과 피부미용학원들이 개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용이라는 커다란 범주 속에 모발과 피부미용이 정착되어 왔다(구자영 외 1996, 정은영 2000).

그러나 최근에는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미용이 단순한 기술이란 인식을 벗어나 예술적 감각과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전문직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용이 개념이 변하고 있고 미용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미용의 전문화 필요성도 새롭게 인식되며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한 영역으로도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미용업계가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가 진행되는 사회에 부응하고 섬세한 서비스제공을 기대하는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각 있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용업은 기술습득이라는 이유로 타업종에 비해 종업원의 대우나 근무환경 면에서 소홀히해 온 경향이 있다(송기욱, 1999).

현대사회의 경쟁은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같은 경쟁사회에서 한 조직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직무만족은 오래 전부터 경영자들에게 조직유효성의 중요한 지표로 인정되어 왔으며,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이직률과 결근률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증가의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 왔다(Locke, 1976).

미용업은 대상이 인간의 신체 일부일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접촉시간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적 자

원의 비중이 일반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고객을 대하는 미용업 종사자들의 근무조건이나 대우, 교육수준에 따라 직무 만족여부, 이직률 등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부 미용업 종사자들의 직업관과 직무만족도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용사들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조판래(1990), 김선미(1997), 정은영(2000) 등으로 극히 저조한 편이며 직업관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피부미용사의 직업관과 직업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피부미용 인력관리 효율성을 기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피부미용사의 직업관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미용 인력의 미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영자의 체계적인 피부미용 인력관리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피부미용사 일반적 특성별 직업관을 파악하고,
2. 피부미용사의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하며
3. 피부미용사의 직업의식을 확실히 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항시, 전주시, 김해시 지역에서 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이었다.

2. 조사방법

본 조사 전 사전질문지를 작성하여 15명의 미용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응답하는데 문제가 있는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조사원 2명이 직접면접 조사하거나 친구나 친지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대부분은 미용사교육이나 모임 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하고 수거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내용

도구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11문항, 건강생활 5문항, 직업에 대한 긍지 5문항,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수준 5문항, 고객서비스 6문항,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5문항, 작업환경 5문항, 동료와의 화목도 5문항으로 총 47문항이었다.

4. 조사자료 정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응답이 잘못되거나 부실한 설문지는 폐기하고 총 295매(전체 300매의 98%)를 부호화 한 후 spss pc+ program에 의거 전산처리 하였다. ANOVA 분석을 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로 하였다.

Ⅲ. 조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를 보면 성별은 여자가 78.7%이었고 남자는 21.3%이었으며 전공분야는 헤어가 94.2%로 대부분이었다(표 1).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46.4%였고 30대 27.1%, 40대 26.5%였으며 기혼자와 미혼자는 47.1%였다. 학별은 고졸자가 59.7%였고 중졸자 16.6%, 전문대 졸업자가 14.2%였다. 근무년수는 3년 미만이 33.95%로 가장 높았고 12~15년이 18.0%, 4~7년이 16.6%, 16~19년이 14.2%의 순이었다. 월수입은 50~99만 원이 28.5%, 100~149만 원이 22.0%, 49만 원 이하가 20.7%, 200만 원 이상이 15.9%의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수(명)	백분율(%)
	295	100.0
성별		
남	63	21.3
여	232	78.7
전공분야		
헤어	278	94.2
피부관리	17	5.8
연령(세)		
29이하	137	46.4
30~39	80	27.1
40이상	78	26.5
결혼여부		
기혼	139	47.1
미혼	139	47.1
이혼, 별거, 사별	17	5.8
학력		
중졸	49	16.6
고졸	176	59.7
전문대졸	42	14.2
대졸이상	28	9.5
근무년수		
3년미만	100	33.9
4~7년	49	16.6
8~11년	34	11.5
12~15년	53	18.0
16~19년	42	14.2
20년 이상	17	5.8
월수입(만원)		
49 이하	61	20.7
50~99	84	28.5
100~149	65	22.0
150~199	38	12.9
200 이상	47	15.9

2. 조사대상자의 근무상황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근무시간은 12시간 이상이 62.3%로 월등히 높았고 9시간이 11.9%, 10시간이 11.2%,

표 2. 조사대상자의 근무상황별 분포

구 분	인원수(명)	백분율(%)
	295	100.0
근무시간(1일)		
8시간이하	28	9.5
9시간	35	11.9
10시간	33	11.2
11시간	15	5.1
12시간	184	62.3
직원수(본인외)		
0명	15	5.1
1~2명	70	23.7
3~4명	89	30.2
5명	121	41.0
직장위치		
도시중심가	120	40.6
변두리지역	57	19.4
아파트단지	80	27.1
시내주태가	38	12.9
직위		
원장	80	27.1
실장	28	9.5
보조원	55	18.6
강사	34	11.5
미용사(관리사)	98	33.3

8시간 이하 9.5%의 순이었다(표 2).

근무처의 직원수는 5명 이상이 41.0%로 가장 높았고 3~4명 30.2%, 1~2명이 23.7%의 순이었으며 지위는 미용사가 33.3%, 원장이 27.1%, 보조원 18.6%, 강사 11.5%, 실장 9.5%의 순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사항 및 직업 선택동기

건강상태별로 보면 건강하다는 응답률이 54.8%였으며 건강하지 않다는 9.0%였다(표 3).

흡연자의 비율은 23.7%였고 음주자는 54.8%였으며 운동을 한다는 응답률은 37.3%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이 78.7%로 높았다. 미용업

표 3.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 및 직업 동기별 분포

구 분	인원수	%
	295	100.0
건강상태		
건강하다	162	54.8
보통이다	106	36.1
건강하지 않다	27	9.0
흡연여부		
피우지 않는다	225	76.3
피운다	70	23.7
음주여부		
마시지 않는다	133	45.2
마신다	162	54.8
운동여부		
거의하지 않는다	185	62.7
한다	110	37.3
스트레스정도		
약간 받는편	232	78.7
보통	53	18.1
안 받는편	10	3.2
미용업 선택동기		
적성에 맞아서	21	7.1
개업가능성 때문에	40	13.5
수입이 많아서	17	5.8
전문직 가능성 때문	196	66.5
기타	21	7.1
미용기술 습득방법		
미용학원 수료	268	91.0
기타	27	9.0

선택동기는 전문직 가능성 때문이 66.5%로 가장 높았고 개업가능성이 13.5%, 적성에 맞아서 7.1%, 수입이 좋아서 5.8%였다. 미용기술 습득방법은 미용학원 수료자가 91.0%로 대부분이었다.

4. 직무만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직무만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안정된 직무와 생활보장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의 능력과 창의력 발휘가 19.4%,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로 18.1%, 근무환경이 7.1%의 순이었으며 보수는 3.2%에 불과하며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표 4-1).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서는 안정된 직무와 생활보장은 여자에서 45.1%로 남자의 39.4%보다 높았으며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 발휘는 남자에서 27.3%로 여자보다 높았고 동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는 여자에서 18.9%로 남자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전공분야별로 보면 안정된 직무와 생활보장에서 여자가 88.9%로 월등히 높았으며 창의력발휘에서는 남자가 19.9%로 여자보다 약간 높았고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에서는 생활보장이 51.2%로 가장 높았고 30세에서는 동료와 원만한 인간관계와 생활보장이 각각 28.6%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결혼상태별로 보면 기혼자의 경우는 생활보장이 46.4%로 가장 높았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21.95, 창의력 발휘가 15.1%의 순이었다. 미혼자의 경우는 생활보장(42.5%) 다음 창의력 발휘가 21.9%, 동료와 원만한 인간관계 15.1%이 순이었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학력별로 보면 중졸자는 생활보장(57.7%), 창의력발휘(11.5%), 보수(11.5%), 근무환경(7.8%)의 순이었으며 고졸자는 생활보장(38.0%), 동료와 인간관계(26.1%), 창의력 발휘(16.3%)의 순이었고 전문대와 대졸자의 경우는 생활보장이 각각 54.5%와 40.4%였고 다음이 창의력 발휘로 31.8%로 학력변수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01$).

근무년수별로는 20년 이상자는 생활보장에서 66.7%로 타군보다 높았고 동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는 8~11년 근무자에서 33.3%로 타군보다 높았고 창의력 발휘는 16~19년 이상자에서 31.8%로 타군보다 높았으며 업무에 대한 흥미는 3년 미만자에서 7.7%로 타군보다 높았다. 이들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월수입별로 보면 49만원 이하자에서는 생활보장(46.9%), 동료와의 인간관계(21.9%), 창의력발

휘(12.5%)의 순이었으며 업무에 대한 흥미는 9.4%로 타군보다 상당히 높았다. 200만원 이상자에서는 생활보장과 보수에서 52.0%로와 8.0%로 타군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들 변수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5. 일반적 특성별 직업관

미용사 직업관은 직업의식, 근무여건, 자기개발, 작업환경, 화목도, 고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6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Likert 5점 척도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분야별로 5개 문항으로 나누어 자기개발에 대한 만족도가 25점 만점에 22.28 ± 5.11 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객서비스(20.09 ± 3.07), 직업의식(19.59 ± 3.13), 화목도(18.92 ± 3.46), 작업환경(18.62 ± 3.58)의 순이었으며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14.26 ± 5.11 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기개발($P < 0.01$), 작업환경($P < 0.01$), 화목도($P < 0.05$), 고객서비스($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분야에서는 헤어전공자의 경우 화목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피부관리전공자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직업의식($P < 0.01$)과 작업환경($P < 0.01$)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직업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40대 이상자에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01$),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작업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기혼자의 만족도가 미혼과 독신(이혼, 별거, 사별)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자에서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화목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근무년수별로 보면 20년 이상자에서 타군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반적으로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월수

표 4-1.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	계	동료들과의		상관과의		안정된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 발휘	업무에 대한 흥미	승진기회	보수	근무환경	χ^2 (df)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관계	지무와 생활보장	지무와 생활보장								
성별													
남	100.0(63)	15.2	6.1	39.4	27.3	6.1	3.2(10)	0.6(2)	3.2(10)	7.1(21)	6.1	8.93(7)	
여	100.0(232)	18.9	4.1	45.1	17.2	2.5	3.2(10)	0.8	4.1	7.4	7.4	8.93(7)	
전공분야													
해어	100.0(278)	19.2	4.8	41.1	19.9	3.4	3.4	0.7	3.4	7.5	7.5		
피부관리	100.0(17)	-	-	88.9	11.1	-	-	-	-	-	-	15.7(7)*	
연령(새)													
29 이하	100.0(137)	15.3	5.6	48.6	18.1	6.9	6.9	-	2.8	2.8	2.8		
30~39	100.0(80)	28.6	7.1	28.6	19.0	-	-	2.4	-	14.3	14.3		
40 이상	100.0(78)	12.2	-	51.2	22.0	-	-	-	7.3	7.3	7.3	50.5(14)**	
결혼여부													
기혼	100.0(139)	21.9	4.1	46.6	15.1	-	-	-	2.7	9.6	9.6		
미혼	100.0(139)	15.1	5.5	42.5	21.9	6.8	6.8	1.4	4.1	2.7	2.7		
이혼, 별거, 사별	100.0(17)	11.1	-	33.3	33.3	-	-	-	-	22.2	22.2	31.87(14)**	

***: p<0.001, **: p<0.01, *: p<0.05

표 4-2. 일반적 특성별 직무만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구 분	계	동료들과의		상관과의		안정된		개인의		업무에 대한 흥미	송진기회	보수	근무환경	χ^2 (df)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관계	직무와 생활보장	장외력 발휘	능력과 창의력								
학력		18.1(53)	4.5(13)	43.9(129)	19.4(57)	3.2(10)	0.6(2)	3.2(10)	7.1(21)					
종족	100.0(49)	3.8	7.7	57.7	11.5	-	-	11.5	7.7			11.5	7.7	
고졸	100.0(176)	26.1	4.3	38.0	16.3	5.4	-	2.2	7.6			2.2	7.6	
전문대졸	100.0(42)	4.5	-	54.5	31.8	-	4.5	-	4.5			-	4.5	
대졸이상	100.0(28)	13.3	6.7	40.0	33.3	-	-	-	6.7			-	6.7	64.87(21)***
근무년수														
3년 미만	100.0(100)	19.2	5.8	44.2	17.3	7.7	-	3.8	1.9			3.8	1.9	
4~7년	100.0(49)	15.4	3.8	50.0	15.4	3.8	-	-	11.5			-	11.5	
8~11년	100.0(34)	33.3	11.1	33.3	16.7	-	-	-	5.6			-	5.6	
12~15년	100.0(53)	17.9	3.6	32.1	21.4	-	3.6	7.1	14.3			7.1	14.3	
16~19년	100.0(42)	9.1	-	50.0	31.8	-	-	4.5	4.5			4.5	4.5	
20년 이상	100.0(17)	11.1	-	66.7	11.1	-	-	-	11.1			-	11.1	59.11(35)**
월수입(만원)														
49 이하	100.0(61)	21.9	6.3	46.9	12.5	9.4	-	-	3.1			-	3.1	
50~99	100.0(84)	15.9	4.5	43.2	22.7	4.5	-	4.5	4.5			4.5	4.5	
100~149	100.0(65)	20.6	2.9	44.1	14.7	-	2.9	2.9	11.8			2.9	11.8	
150~199	100.0(38)	25.0	10.0	30.0	25.0	-	-	-	10.0			-	10.0	
200 이상	100.0(47)	8.0	-	52.0	24.0	-	-	-	8.0			-	8.0	47.20(28)*

***: p<0.001, **: p<0.01, *: p<0.05

표 5-1. 일반적 특성별 미용사 직업관

구분	인원수	직업의식	근무여건	자기개발	작업환경	화목도	고객서비스	계
	295	19.59±3.13	14.26±5.11	22.28±3.83	18.62±3.58	18.92±3.46	20.09±3.07	113.7717.25
	100점기준	78.4	57.0	89.1	74.5	75.7	80.4	75.9
성별								
남	63	19.91±3.39	14.91±6.05	23.48±4.29	19.79±4.35	19.91±3.57	21.33±3.29	119.33±20.41
여	232	19.51±3.06	14.09±4.82	21.96±3.64	18.30±3.26	18.66±3.39	19.75±2.93	112.27±16.01
		t = 0.90	t = 1.13	t = 2.83**	t = 2.95**	t = 2.57*	t = 3.69***	t = 2.91**
전공분야								
헤어	278	19.47±3.09	14.14±5.13	22.23±3.89	18.45±3.59	18.97±3.51	20.06±3.07	113.31±17.43
피부관리	17	21.67±3.11	16.33±4.26	23.11±2.64	21.44±1.76	18.22±2.70	20.56±3.23	121.33±11.98
		t = 2.85**	t = -1.73	t = -0.92	t = -3.43**	t = 0.86	t = -0.64	t = -1.88
연령(세)								
29이하	137	18.81±2.91	12.06±4.58	21.39±3.47	18.22±3.74	18.19±3.24	19.54±3.06	108.21±15.13
30~39	80	18.86±2.43	13.95±4.68	21.33±3.39	17.90±3.23	17.86±2.85	19.62±2.67	109.52±14.10
40이상	78	21.73±3.18	18.46±3.65	24.83±3.76	20.05±3.24	21.29±3.34	21.54±3.05	127.90±15.85
		F = 29.53***	F = 53.37***	F = 27.64***	F = 9.15***	F = 30.03***	F = 12.70***	F = 46.90***
결혼여부								
기혼	139	20.52±3.14	15.88±5.13	23.42±3.90	19.26±3.52	19.55±3.64	20.79±3.07	119.42±18.15
미혼	139	18.73±2.80	12.56±4.61	21.14±3.48	17.77±3.60	18.23±3.27	19.27±2.94	107.70±14.42
이혼, 별거, 사별	17	19.11±3.71	15.00±4.53	22.33±3.44	20.33±1.94	19.44±2.48	21.00±2.57	117.22±14.96
		F = 12.53***	F = 16.38***	F = 13.42***	F = 8.56***	F = 5.37***	F = 9.86***	F = 18.35***

***: p<0.001, **: p<0.01, *: p<0.05

표 5-2. 일반적 특성별 이용자 직업관

구분	인원수	직업의식	근무여건	자기개발	직업환경	화목도	고객서비스	계
	295	19.59±3.13	14.26±5.11	22.28±3.83	18.62±3.58	18.92±3.46	20.09±3.07	113.7717.25
100참기준		78.4	57.0	89.1	74.5	75.7	80.4	75.9
학력								
중졸	49	19.19±3.36	14.42±5.53	23.00±4.35	18.53±3.07	19.12±3.75	19.58±3.13	113.86±18.99
고졸	176	19.26±3.02	13.63±4.89	23.51±3.37	18.01±3.69	18.75±3.36	19.84±3.00	111.00±16.07
전문대졸	42	19.68±3.03	14.64±4.80	23.32±4.08	20.05±2.97	18.68±3.40	20.55±3.24	116.91±16.45
대졸이상	28	22.2±2.39	17.33±5.15	24.27±4.08	20.40±3.48	20.00±3.60	21.87±2.54	126.07±19.96
		F = 8.07***	F = 4.59**	F = 6.90***	F = 6.63***	F = 1.19	F = 4.50**	F = 7.24**
근무년수								
3년 미만	100	18.06±2.44	10.52±3.91	20.74±3.25	17.31±3.52	17.81±3.08	19.13±2.70	103.56±11.87
4~7년	49	19.46±2.96	12.88±3.68	21.58±2.93	18.69±3.74	17.81±2.66	19.62±2.75	110.04±12.81
8~11년	34	20.00±2.91	15.00±4.03	22.11±3.40	18.28±3.28	18.28±2.81	19.50±3.68	113.17±15.76
12~15년	53	19.79±3.03	17.21±4.44	22.82±4.22	19.64±3.27	19.50±3.88	20.75±2.99	119.71±17.09
16~19년	42	21.45±3.27	18.13±3.78	24.18±3.68	19.82±3.20	20.95±3.13	21.21±2.88	125.82±16.00
20년 이상	17	22.89±2.55	19.78±3.88	27.33±2.87	20.56±3.37	23.11±2.68	23.22±2.21	136.80±14.85
		F = 14.33***	F = 39.52***	F = 14.52***	F = 6.02***	F = 14.06***	F = 8.70***	F = 27.41***
월수입(만원)								
49 이하	61	17.88±2.78	9.16±3.39	19.72±2.84	16.56±3.50	17.22±2.76	18.53±2.70	99.06±10.54
50~99	84	18.34±2.24	12.27±3.32	22.18±2.97	18.05±3.46	17.73±2.96	19.59±2.69	107.16±10.69
100~149	65	19.76±2.98	14.85±3.48	21.76±3.06	18.56±3.24	18.11±2.89	19.88±3.12	112.94±12.53
150~199	38	20.40±2.91	18.10±3.57	23.35±3.43	19.60±3.06	20.15±2.99	20.70±3.11	122.30±14.70
200 이상	47	23.12±2.05	20.44±3.30	27.36±2.46	21.56±2.48	23.32±1.89	22.76±2.26	138.56±9.77
		F = 34.36***	F = 93.19***	F = 51.09***	F = 17.50***	F = 43.00***	F = 16.85***	F = 91.56***

***: p<0.001, **: p<0.01

입별로 보면 월수입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6. 근무상황에 따른 미용사의 직업관

근무시간별로 보면 직업의식($P<0.05$), 근무여건($P<0.001$), 작업환경($P<0.05$), 화목도($P<0.001$)와는 유의성이 있었다(표 6).

직원수가 적을수록 직업관은 긍정적이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직업의식($P<0.01$), 자기개발($P<0.05$), 작업환경($P<0.001$), 고객서비스($P<0.01$)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직위별로 직업의식, 자기개발, 근무여건, 작업환경, 화목도, 고객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7.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에 따른 미용사의 직업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미용사의 직업관은 긍정적이었으며 직업의식($P<0.01$), 자기개발($P<0.01$), 작업환경($P<0.001$), 화목도($P<0.001$), 고객서비스($P<0.001$)에서 유의성이 있었다(표 7).

비흡연자(114.1 ± 17.1)에서 흡연자(111.2 ± 17.7)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직업의식($P<0.05$)과 근무여건($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음주자에서 25점 만점에 114.2 ± 18.7 점으로 비음주자 113.2 ± 5.4 점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근무여건 변수에서 유의성이 있었다($P<0.05$). 운동을 한다는 응답자에서 117.3 ± 18.3 점으로 안한다는 응답자의 111.7 ± 16.3 점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직업의식($P<0.01$), 근무여건($P<0.01$), 작업환경($P<0.05$), 화목도($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편에서 127.2 ± 12.0 점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자보다 직업관에서 더 긍정적이었으며 직업의식($P<0.001$), 근무여건($P<0.01$)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미용업선택 이유별로 보면 직업의식은 적성에 맞아서에서 20.5 ± 2.2 점($P<0.05$), 자기개발은 수입이 많아서에서 23.1 ± 4.2 점($P<0.001$), 작업환경은 전문직 가능성 때문에서 19.3 ± 2.8 점($P<0.001$), 고객서비스는 수입 문항에서 20.5 ± 2.9 점($P<0.001$)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미용기술습득이 미용학원수료자는 작업환경과 고객서비스에서 각각 유의하게 ($P<0.05$) 긍정적이었다. 이직의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으며 직업관의 모든 분야에서 유의성이 있었다($P<0.001$).

8. 이직을 고려하는 중요이유

이직을 고려하는 중요이유에서 개인적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라는 응답률이 24.0%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환경 및 출퇴근시간이 힘들다가 15.4%, 일한 만큼 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가 15.0%, 업무량이 많고 힘들다가 12.8%, 보수가 너무 적다가 9.1%의 순이었다(표 8).

9. 직장을 선택과 이전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근무환경이 좋은 곳이 24.1%로 가장 높았고 장래에 독립하기 좋은 곳이 16.7%, 기술을 배우기 쉬운 곳이 15.6%, 외부교육이나 연수가 용이한 곳이 9.5%, 주거지와 가까운 곳이 9.0%, 경영주의 인간성과 직장규모의 대소가 각각 7.0%, 보수가 많은 곳이 6.8%의 순이었다. 이는 근무환경이 좋은 곳과 장래성이 다른 조건보다 우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이직의사 여부

이직할 의사가 없다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있다가 32.3%, 모르겠다가 27.1%로서 전체의 1/3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미용사들이 현직에 만족하고 있는 않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표 10-1).

특성별로 보면 이직의사는 여자에서 33.1%, 헤어전공분야에서 32.9%, 29세 이하에서 43.1%, 독신자(이혼, 별거, 사별)에서 44.4%, 중졸자에서 42.3%, 3년 미만 근무자에서 49.2%, 월수입 49만원 이하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며 연령($p<0.01$), 결혼상태($p<0.05$), 근무년수($p<0.001$), 월수입($p<0.001$) 변수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근무시간은 9시간에서 50.0%, 직원수 본인의

표 6. 근무상황에 따른 미용사 직업관

구 분	인원수	직업의식	근무여건	자기개발	직업환경	화목도	고객서비스	계
	295	19.59±3.13	14.26±5.11	22.28±3.83	18.62±3.58	18.92±3.46	20.09±3.07	113.77±7.25
	100점기준	78.4	57.0	89.1	74.5	75.7	80.4	75.9
근무시간(1일)								
8시간이하	28	20.20±2.84	16.47±3.40	21.73±3.67	16.53±4.12	17.93±2.45	19.13±3.08	112.00±13.88
9시간	35	19.67±2.99	14.44±3.54	21.72±2.46	18.56±2.69	16.89±2.95	19.22±3.00	110.50±12.97
10시간	33	20.29±3.63	16.76±4.96	23.41±4.05	19.24±3.05	19.88±2.97	20.29±2.99	119.88±17.50
11시간	15	21.25±2.87	16.75±4.23	24.25±3.72	19.13±4.18	20.00±3.39	20.63±3.27	122.00±16.34
12시간이상	184	19.23±3.08	13.25±5.36	22.11±3.98	18.80±3.59	19.20±3.62	20.32±3.06	112.91±18.13
		F = 2.42*	F = 6.46***	F = 2.16	F = 2.94*	F = 5.08***	F = 1.80	F = 2.43*
직원수(본인외)								
0명	15	19.50±1.55	13.63±3.51	20.75±3.26	14.75±1.62	18.00±2.93	19.50±2.25	106.13±10.67
1~2명	70	18.46±2.76	13.68±4.98	21.27±3.66	17.30±3.46	18.22±3.39	19.19±2.77	108.11±14.93
3~4명	89	19.60±2.98	13.60±4.68	22.85±3.25	19.56±2.76	19.26±2.87	20.04±2.89	114.89±13.64
5명	121	20.27±3.42	15.19±5.55	22.65±4.25	19.19±3.84	19.21±3.90	20.73±3.33	117.24±20.34
		F = 5.16**	F = 2.25	F = 3.56*	F = 13.79***	F = 1.90	F = 4.07**	F = 5.51**
직장위치								
도시중심가	120	19.59±3.23	13.87±4.90	21.97±3.72	18.73±3.65	18.60±3.24	20.37±2.93	113.13±16.81
변두리지역	57	19.93±3.17	14.73±5.53	23.03±3.99	18.60±3.50	19.63±3.95	20.47±2.99	116.40±18.79
아파트단지	80	19.14±2.93	13.95±4.93	21.79±3.73	18.29±3.73	18.60±3.07	19.48±3.02	111.24±15.21
시내주백가	38	20.05±3.16	15.45±5.41	23.20±3.97	19.00±3.20	19.55±4.00	19.95±3.63	117.20±19.72
		F = 1.05	F = 1.18	F = 2.20	F = 0.41	F = 1.81	F = 1.71	F = 1.58
직위								
원장	80	21.62±2.82	18.50±4.18	25.29±3.76	20.43±3.07	21.86±2.77	21.52±3.00	129.21±14.85
실장	28	21.73±2.24	17.60±5.07	24.53±2.83	21.53±2.20	21.27±2.98	22.40±1.81	129.07±12.19
보조원	55	18.45±2.59	9.93±3.82	19.76±3.11	16.48±3.69	17.76±2.89	18.52±2.81	100.90±12.03
강사	34	19.11±3.24	14.72±2.87	22.33±2.60	18.83±2.71	17.17±2.67	19.67±2.87	111.83±10.86
미용사	98	18.12±2.61	12.10±3.63	20.57±2.76	17.41±3.24	17.10±2.57	19.27±2.79	104.57±10.63
		F = 25.50***	F = 53.38***	F = 38.67***	F = 22.77***	F = 44.90***	F = 16.86***	F = 70.88***

***: p<0.001, **: p<0.01, *: p<0.05

표 7. 건강상태 및 건강생활에 따른 미용사 직업관

구 분	인원수	직업의식	근무여건	자기개발	작업환경	화목도	고객서비스	계
	295	19.59±3.13	14.26±5.11	22.28±3.83	18.62±3.58	18.92±3.46	20.09±3.07	113.7717.25
	100점기준	78.4	57.0	89.1	74.5	75.7	80.4	75.9
건강상태								
건강하다	162	20.16±3.01	14.51±5.38	22.87±3.89	19.33±3.20	19.84±3.42	20.73±3.02	117.44±17.22
보통이다	106	19.00±3.19	14.07±4.74	21.84±3.73	17.93±3.96	18.14±3.32	19.38±3.05	110.36±16.89
건강하지 않다	27	18.50±2.98	13.57±4.88	20.50±3.17	17.07±3.26	16.50±2.27	19.07±2.65	105.21±12.98
		F = 6.46**	F = 0.50	F = 5.67**	F = 8.04**	F = 16.39**	F = 8.24**	F = 9.54**
흡연여부								
피우지 않는다	225	19.82±3.20	14.63±5.18	22.44±3.69	18.64±3.34	19.04±3.50	20.02±3.10	114.58±17.08
피운다	70	18.86±2.82	13.11±4.71	21.78±4.25	18.57±4.28	18.54±3.36	20.32±2.98	111.19±17.67
		t = 2.25*	t = 2.19*	t = 1.25	t = 0.14	t = 1.06	t = -0.73	t = 1.44
음주여부								
마시지 않는다	133	19.71±3.08	13.50±5.01	22.53±3.43	18.54±3.07	18.70±3.17	20.26±2.54	113.24±15.36
마신다	162	19.49±3.18	14.89±5.12	22.08±4.14	18.68±3.96	19.11±3.69	19.95±3.45	114.21±18.69
		t = 0.60	t = -2.35*	t = 0.99	t = -0.33	t = -1.00	t = 0.85	t = -0.48
운동여부								
거의하지 않는다	185	19.19±2.97	13.56±4.99	22.01±3.79	18.25±3.49	18.60±3.30	20.07±2.80	111.67±16.29
한다	110	20.28±3.28	15.45±5.11	22.74±3.88	19.24±3.64	19.47±3.68	20.12±3.50	117.29±18.28
		t = -2.93**	t = -3.12**	t = -1.59	t = -2.32*	t = -2.09*	t = -0.13	t = -2.74**

***: p<0.001, **: p<0.01, *: p<0.05

표 8. 이직을 고려하는 중요 이유(3가지 선택)

구 분	No.	%
	508	100.0
업무량이 너무 많고 힘들다	65	12.8
보수 너무 적다	46	9.1
상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나쁘다	21	4.1
작업환경이나 복지 후생시설이 나쁘다	21	4.1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76	15.0
가족이나 친지들의 반대	25	4.9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122	24.0
미용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	8	1.6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가정에 대한 책임	21	4.1
주거환경 및 출퇴근이 힘들다	78	15.4
기타	25	4.9

표 9. 직장을 선택과 이천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3가지 선택)

구 분	No.	%
	842	100.0
기술을 배우기 쉬운 곳	131	15.6
보수가 많은 곳	57	6.8
경영주의 인간성	59	7.0
주거지와 가까운 곳	76	9.0
장래에 독립하기 유리한 곳	141	16.7
경영자의 경영수완이 좋은 곳	10	1.2
외부교육이나 연수가 용이한 곳	80	9.5
직장규모의 대소(직원수)	59	7.0
매스컴을 타는 유명한 곳	15	1.8
근무환경이 좋은 곳	203	24.1
자유롭게 휴가나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11	1.3

표 10-1. 일반적 특성별 이직의사 여부

구 분	계 100.0(295)	있다 32.3(95)	잘모르겠다 27.1(80)	없다 40.6(120)	$\chi^2(df)$
성별					
남	100.0(63)	27.3	21.2	51.5	
여	100.0(232)	33.6	28.7	37.7	3.95(2)
전공분야					
헤어	100.0(278)	32.9	27.4	39.7	
피부관리	100.0(17)	22.2	22.2	55.6	1.72(2)
연령(세)					
29 이하	100.0(137)	43.1	26.4	30.6	
30~39	100.0(80)	26.2	35.7	38.1	
40 이상	100.0(78)	19.5	19.5	61.0	25.12(4)***
결혼상태					
기혼	100.0(139)	23.3	27.4	49.3	
미혼	100.0(139)	39.7	27.4	32.9	
이혼, 별거, 사별	100.0(17)	44.4	22.2	33.3	11.65(4)*
학력					
중졸	100.0(49)	42.3	23.1	34.6	
고졸	100.0(176)	30.4	30.4	39.1	
전문대졸	100.0(42)	31.8	27.3	40.9	
대졸이상	100.0(28)	26.7	13.3	60.0	8.18(6)
근무년수					
3년 미만	100.0(100)	44.2	26.9	28.8	
4~7년	100.0(49)	42.3	30.8	26.9	
8~11년	100.0(34)	22.2	27.8	50.0	
12~15년	100.0(53)	32.1	25.0	42.9	
16~19년	100.0(42)	13.6	27.3	59.1	
20년 이상	100.0(17)	-	22.2	77.8	33.28(10)***
월수입					
49 이하	100.0(61)	50.0	21.9	28.1	
50~99	100.0(84)	40.9	29.5	29.5	
100~149	100.0(65)	32.4	38.2	29.4	
150~199	100.0(38)	15.0	35.0	50.0	
200 이상	100.0(47)	8.0	8.0	84.0	60.74(8)***

***: p<0.001, *: p<0.05

표 10-2. 근무상황 및 동기별 이직의사 여부

구 분	계 100.0(295)	있다 32.3(95)	잘모르겠다 27.1(80)	없다 40.6(120)	$\chi^2(df)$
근무시간(1일)					
8시간 이하	100.0(28)	33.3	26.7	40.0	
9시간	100.0(35)	50.0	22.2	27.8	
10시간	100.0(33)	35.3	23.5	41.2	
11시간	100.0(15)	25.0	37.5	37.5	
12시간 이상	100.0(184)	28.9	27.8	43.3	7.20(8)
직원수(본인외)***					
0명	100.0(15)	12.5	62.5	25.0	
1~2명	100.0(70)	48.6	29.7	21.6	
3~4명	100.0(89)	23.4	29.8	46.8	
5명	100.0(121)	31.7	19.0	49.2	30.35(6)
직장위치**					
도시중심가	100.0(120)	33.3	28.6	38.1	
변두리지역	100.0(57)	26.7	26.7	46.7	
아파트단지	100.0(80)	40.5	33.3	26.2	
시내주택가	100.0(38)	20.0	10.0	70.0	22.24(6)
직위***					
원장	100.0(80)	7.1	21.4	71.4	
실장	100.0(28)	40.0	6.7	53.3	
보조원	100.0(55)	44.8	27.6	27.6	
강사	100.0(34)	38.9	27.8	33.3	
미용사(관리사)	100.0(98)	41.2	37.3	21.6	61.90(8)
미용업 선택이유**					
적성에 맞아서	100.0(21)	27.3	54.5	18.2	
개업가능성 때문에	100.0(40)	33.3	23.8	42.9	
수입이 많아서	100.0(17)	22.2	33.3	44.4	
전문직 가능성 때문	100.0(196)	35.0	21.4	43.7	
기타	100.0(21)	18.2	54.5	27.3	20.91(8)

***: p<0.001, **: p<0.01

2~3명에서 48.6%, 직장위치는 아파트단지에서 40.5%, 보조원에서 44.8%, 전문직 가능성 때문에 미용업 선택자에서 35.0%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며 직원수(p<0.001), 직장위치(p<0.01), 직위(p<0.001), 미용업 선택이유(p<0.01)는 유의성이 있었다(표 10-2).

11.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미용사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한 결과는 이직의사 여부, 직원수,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월수입 변수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표 11)에 제시된 모든 변수의 설명력은 62.5%였다.

즉 이직의사에서 긍정적일수록 직원수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월수입이 적을수록 만족도는 높았다.

표 11.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Classificaton	b	SE B	Beta	Sig T
이직의사 여부	-2.8255	.6389	-.1876	.000
1일 근무시간	-.3045	.5189	-.0255	.5578
직원수(본인제외)	1.0260	.4665	.0874	.0287
건강상태	4.2377	.9763	.1685	.0000
스트레스정도	-2.0004	.9086	-.0894	.0285
학력	.5030	.3573	.0554	.1602
성별	2.3719	1.7408	.0564	.1741
근무년수	-.1938	.2547	-.0680	.4473
연령	.0451	.1217	.0250	.7110
월수입	1.9439E-05	2.4013E-06	.6187	.0000
(Constant)	86.3277	10.6379		.0000
R2		0.6247		
F		47.1833		
Significance		0.0000		

성별 : (남-1, 여-0)

연령 : (실연령)

학력 :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이상-16)

근무년수 : (년수)

월수입 : (평균값)

이직의사여부 : (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1)

1일 근무시간 : (실수)

직원수(본인제외) : (실수)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하다 5-매우 나쁘다 1)

스트레스 정도 : (매우 많이 받는다 5-전혀없다 1)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미용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3개월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포항시, 전주시, 김해시 지역의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그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28.7%, 헤어전공이 94.2%, 29세 이하가 46.4%, 기혼자와 미혼자가 각 47.1%, 고졸자가 59.7%, 3년 미만 근무자가 33.9%, 월수입이 50~99만원인자가

28.5%였다. 근무상황별 분포는 1일 12시간 이상 근무자가 62.3%, 직원수가 5명 이상이 41.0%, 도시 중심가 근무자가 40.6%였고 미용사로서 근무하는 자가 33.3%였다.

2. 자가판단으로 건강하다가 54.8%, 흡연자가 76.3%, 음주자가 54.8%, 운동하지 않는다가 62.7%, 스트레스 받는 편이 78.7%였으며 미용업 선택동기는 전문적 가능성 때문이 61.5%였고 미용기술습득은 미용학원수료가 91.0%였다.

3. 직무만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안정된 직무와 생활 보장이 43.9%로 가장 높았고 개인능력과 창의력 발휘가 19.4%, 동료들과 원만

한 인간 관계가 18.1%, 근무환경이 7.1%, 상관과의 원만한 관계가 4.5%, 업무에 대한 흥미와 보수가 각 3.2%의 순이었다.

4. 미용사 직업관 수준은 총 150점 만점에 113.8±17.3점으로 100점 기준 75.9점이었다. 각 항목별로 75점을 만점으로 하여 자기개발이 22.3±3.8점, 고객서비스가 20.1±3.1점(100점 기준 80.4), 직업의식이 15.6±3.1(100점 만점 78.4), 화목도가 18.9±3.5점(100점 기준 75.7), 작업환경이 18.6±3.6점(100점 기준 74.5), 근무여건이 14.3±5.1점(100점 기준 57.0)의 순이었다.

5.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가 24.0%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 및 출퇴근이 힘들다가 15.4%, 일한 만큼 적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가 15.0%, 업무량이 많고 힘들다가 12.8%였다.

6. 직장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근무환경이 좋은 곳 24.1%, 장래 독립하기 용이한 곳이 16.7%, 기술 배우기 쉬운 곳 15.6%, 외부교육과 연수허용이 9.5%, 주거지와 가까운 곳 9.0%의 순이었다.

7. 이직의사여부는 없다가 40.6%, 있다가 32.3%, 모르겠다가 27.1%였으며 연령과 근무년수, 월수입, 결혼상태, 직원수, 직장위치, 직위, 미용업 선택이유 변수와 유의성이 있었다.

8. 미용사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이직의사 여부, 직원수,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월수입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2.4%였다.

2. 결론

미용사는 근무여건과 작업환경, 직업의식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개인적 자유시간 부족, 업무량과다, 근무환경열악, 정당한 대우 부적절 등의 이유로 이직 생각을 하게 되므로 개인이나 관련단체 등 미용업계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미의 창조자인 미용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광형심,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 행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 1998.
2. 구자영, 장문정, 전문대학 미용계학과의 학과 명칭과 교육과정수정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 2 권 제 1 호, pp. 163-165, 1996.
3. 김복희, 남철현: 여성의 피부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5(1), 1998.
4. 김은숙, 남철현, 미용학원수강생의 모발미용 의식행태와 미용실 위생상태에 대한 조사연구, 보건복지연구 제 3 호, 경산대 보건복지연구소, 1999.
5. 김종대 외, 피부관리학, 고문사, p. 9, 1994.
6. 송기옥, 서비스조직에 있어서의 내부마케팅 전략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pp. 1-4, 1999.
7. 신유근, 조직행위론, 다산출판사, 1985.
8. 전연숙, 여성의 화장에 대한 의식행태와 관련요인, 경산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 정은영, 경산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0. 조판래, 미용업종사원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pp. 32-56, 1990.
11. 최연희, 남철현, 미용실 종사자들의 두발처치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연구 제 4 호, 보건복지연구소, 2000.
12. Alderfer C. P.,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New York, Free Press), 1972, p. 7.
13. Gillmer B.H., Industrial Psychology, 2nded (Tokyo: Mcgraw-Hill Kogakusha, 1966), pp. 255, pp. 279-283.
14. Herzberg F., Mausner P. and Snyderman D. B., The Motivation to work(New York; Jenkins D. C., "Psychology and Social Pre-

- cusors of Coronary Disease(II)"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284, 1971, pp. 207-217.
15. Locke E. A., Satisfiers and Dissatisfiers Among White Collar and blue Collar Employe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73)", Vol. 58, pp. 67-76.
 16. Robbins S. P., Essentials of Organization Behavior, Prentice-Hall, Inc, 1984.
 17. Smith. H. C :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 McGraw-Hillbook Co. Inc, 1995.) pp. 114-115.
 18. Smith P. C., Kendall L. H., Hulin C. L.,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Dhicago ; Rand McNully, 1969), pp. 201-208, p. 39 Wiley, 1959).
 19. Vroom V. H., Work and Motivation(New York ; Wiley & Sons, Inc, 1964), p. 183.